

종합 평가사유서

□ 안 건 명 : 헬렌관 재건축 설계용역 제안서평가

□ 총평 및 개선사항

-심사위원들은 헬렌관 재건축 설계용역의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헬렌관과 중앙도서관의 연계와 개방감 확보, ECC를 비롯한 캠퍼스의 건축적 질서와 맥락, 헬렌관의 새로운 진입공간에 대한 고려, 경사지형 활용과 제안, 보존영역에 대한 존중과 창의적 제안, 주어진 기능과 프로그램에 대한 합리적 제안, 증축과 리모델링을 고려한 구조적 해결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개진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당선작은 헬렌관이 추후 중앙도서관의 새로운 로비공간이자 콘코스(concourse)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방감 있게 제안한 점, 특히 지하1층과 1층의 출입구를 레벨을 이용하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지침에서 언급된 보존영역의 구조와 외피를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계획한 높이 확장된 내부의 콘코스 공간과 상층부로 연결되는 내부의 큰 계단은 개방감과 전망을 동시에 확보한 제안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거대한 내부 계단계획은 ECC의 외부 계단과 대비되면서도 연계되는 질서 안에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당선작은 각층의 바닥면적을 가장 크게 확보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융통성 있는 공간계획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는 층수를 낮출 수 있는 계획으로 연결되어 타출품작과 달리 가장 중앙도서관을 작게 가리는 높이로 계획됨으로써 중앙도서관을 시각적으로 가장 존중하는 제안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옥상부를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외부 휴게마당과 전망공간을 제공하도록 한 점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 외부 입면계획은 보존영역에 대한 심사위원들 간의 엇갈린 평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외피를 존중하면서도 단순하고 명료한 새로운 입면계획을 제시하였다는 평가가 우세하였다. 다만 심사위원들은 당선작에서도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으며 이는 제안평가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당선작에서 보완하여야 할 부분은 기존 구조에 하중이 가해지도록 계획한 부분의 기초와 기둥 등의 구조적 보강계획과 내진보강, 직통계단과 피난계단에 대한 법적, 계획적 검토, 헬렌관과 중앙도서관을 연결하는 장애인 동선 등에 대해 보완, 중앙도서관과 마주하는 외벽선의 대응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3,4 등 수상작으로 결정된 출품작들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평가는 각각의 안이 우수한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영역에 대한 존중이 과하여 증축부를 높게 계획함으로써 중앙도서관을 지나치게 가린다는 평가가 단점으로 지적되었고 아울러 외부 재료와 입면계획이 기존 헬렌관의 입면과 중앙도서관의 외부재료를 고려하였을 때 조화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2023년 5월 12일

평가위원장 이충기 (서명)

이화여자대학교 귀중